디지털 영화, 새로운 영화의 형식과 제작

- 국내외에 부는 디지털 영화의 붐

이 용 관 | 영화평론가

디지털의 가장 큰 변혁은 오히려 엉뚱한 데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십대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장 뤽 고다르는 ' 비디오 카메라 '가 등장했을 때 누구나 영화를 찍게되는 미래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보다는 조금은 늦었지만 ' 디지털 카메라 '는 고다르의 예언을 새삼스럽게 실현시키고 있다. 글쓰기보다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빠른 세대의 진입은 ' 디지털 '이라는 방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터넷 혁명만큼이나 피할 수 없는 영상세대의 혁명 언어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얼마 전 국내에 개봉한『칸영화제』대상 수상작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어둠 속의 댄서>는 드라마의 감동으로도 호평을 받았지만, 감동을 전달하는 새로운 편집술과 카메라의 효과로 크게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극의 절정인 법정장면이나 영화 곳곳에 깔린 뮤지컬 장면은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나 극영화에서 찾기 힘든 촬영 각도와 움직임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러한 놀라운 편집술이 바로 디지털 카메라 100대를 동원해 이룩해 낸 결과다. 일반 극영화를 촬영하는 35㎜ 카메라를 썼다면, 카메라 100대의 동원은 불가능했을 일이다. 360도의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현란함은 디지털 시대에 가능한 이미지이다. 경량화 되었고, 기존의 필름 룩 *look*이 담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훨씬 더 세밀하고 자유분방한 촬영 각도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적 경험이 다시 한번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은 디지털의 본성과도 관련을 맺는다. 디지털의 장점은 단순함이다. 디지털의 방식은 있다/없다, on/off, 흐름/단절, 0/1 등의 이분법적 코드 *binary code*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장점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압도하게 된다. 이분법적 코드는 정보의 생성, 전송, 저장, 처리에 있어서 이전의 아날로그적인 방식보다 처리 속도와 저장 능력에 있어 월등한 능력을 함축하는 것이다. 디지털의 이러한 본질은 기존의 움직임들과는 달리 훨씬 현실과 밀착한 느낌을 전달하고, 감정의 직접성이랄까 반응을 즉각적으로 잡아내는 데 참으로 편리하다. 마치 다큐멘터리와 판타지 영화가 결합된 듯한 느낌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특성 덕분이다.

디지털의 특성을 보여주는 실례는 넘쳐난다. <에반게리온> 시리즈로 유명한 안노 히데아끼의 <러브 앤 팝>은 무라카미 류의 원작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으로 몰래카메라와 최소형 카메라의 활용을 보여준

다. 마음에 드는 반지를 사기 위해 원조교제를 하는 여고생의 일상을 최소형 카메라를 통해 포착한다. 여고생의 치마 밑이나 원조교제를 하는 어른의 신체 등에 부착된 최소형 카메라는 기존 영화에서는 불가능한 시점들을 제공한다. 관객은 그러한 시점을 통해 훔쳐보기의 매력에 빠지면서 지각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임상수의 <눈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토바이에 부착된 디지털 카메라는 핸들의 움직임을 낯선 시점에서 잡아내고 있다. 기존의 필름 카메라가 경제성과 크기로 들어설 수 없는 지점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새로운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 영화의 세계화

아직 일천하기는 하지만 디지털 영화가 비단 유럽이나 아시아 영화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으로 이해돼서는 곤란하다. <스타워즈>시리즈를 새롭게 부활시킨 조지 루카스 감독은 새롭게 공개한 <에피소드 1>에 이어 <에피소드 2>에서는 100% 디지털로 영화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상영을 위해 35㎜ 필름 영상기를 빌리는 것뿐이지 필름에 입히기 전까지 모든 것은 디지털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 그래서 혹자는 필름의 종말을 예고한다. 음악의 저장방식이 LP에서 CD로 그리고 MP3로 바뀌어 가듯 필름의 역사도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사람들은 35㎜ 필름을 표준형으로 삼기 전에 72㎜, 16㎜, 8㎜ 필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양한 시각적 체험과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여러 모델이 시험되었다. 이제 변화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매체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새로운 기술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매체에 대한 감독들의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버전 업'을 향해 움직이는 현대 문명(특히 IT와 디지털 문명)이 보여주듯이 기술력의 적자생존 법칙은 자연계보다 훨씬 더 냉혹하다. 문제는 여전히, 새로운 기술 속에 담긴 정신이다.

디지털 영화가 보여주는 영상은 우리의 무의식과 지각을 확장한 것이다. 영화의 여명기에 카메라라는 장치가 전해준 '세상 밖에 있는 듯한 움직임'들은 이제 영화의 자연스러운 형식들이 되었다. 결국 디지털 영화가 보여주는 시각적 충격들도 영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취사선택 될 것이다. 낯선 디지털의 영상들은 흑백영화와 컬러영화의 순서, 무성영화와 유성영화의 순서처럼 우리의 인식영역에 익숙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술의 문제로 치부할 수 만은 없다. 라스 폰 트리에의 영화가 환영받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발휘된 넘쳐나는 주제의식 때문이었다. 현장과 야외촬영을 원칙으로 선언한 '도그마 95'는 할리우드식에 저항해 북유럽의 새로운 작가들이 좀더 건강하고, 실천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 내세운 선언문이었다. 디지털 카메라는 기꺼이 이들을 위한 선봉장이 되었다. 그 결과들이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라스 폰 트리에를 비롯한 몇몇 도그마 선언의 주창자들은 작고 가벼운 카메라로 인간의 내부 속 깊숙이 들어가 무겁고 어두운 내면 풍경들을 화면 앞으로 끌어내었다. 최근 국내외 다큐멘터리들이 대부분 디지털 6㎜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의 기동성과 운동성이 좀더 현실과 밀착한 영상들을 뽑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기자재라고는 디지털 편집기('아비드 편집기'가 대표적이다)가 전부였던 것이 이제는 국내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이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새로운 미학

을 대변하는 빔 벤더스는 그의 최근작들을 HD *High Definition* 카메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라스 폰 트리에는 이미 <백치들>에서부터 디지털 화면의 사실성을 통한 충격적인 이미지들을 완성해 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디지털을 아날로그 필름으로 영상화 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 상영 가능토록 만들고 있다. 이미 이러한 영화들은 씨네포엠(www.cine4m.com)을 비롯한 여러 대안 공간들을 통해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작년 최대의 화제작이었던 <블레어 윗치>의 경우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마케팅과 홍보를 겸한 전략으로 디지털 영화의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냈다. 디지털 코딩화를 통한 인터넷 상영은 적은 비용과 전용선만 갖추어져 있으면 어디서든 관람을 가능케 한다. 이미 영화 전문 사이트 ' 씨네 포엠 ' 에서 만든 장진 김지운 류승완 감독의 디지털 영화들은 총 3백만 이상의 관람을 자랑하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 풍속도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영화의 정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디지털과 대안을 표방한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안 사실이지만 전주 시장은 디지털 영상센터를 짓고, 미래의 영화 인력을 위한 투자 계획도 추진 중인 모양이다. 하지만 좀 걱정된다. 영화제의 충격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늘 산업의 논리로만 빠지고 마는 것이다. 진정한 정신의 자각, 디지털 문화, 디지털 영화에 대한 사고는 은근히 한쪽에 물러나 있다.

그것은 전주 국제영화제가 얼굴로 내세우는 ' N-비전 ' 이나 ' 디지털 삼인삼색 ' 이라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든 생각이다. 특히 디지털 삼인삼색이란 국내외를 막론한 세계적인 감독들에게 디지털로 영화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1년 간 진행하고, 그 성과물을 전주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이다. 올해 선정된 존 아캄프라, 지아 장커, 차이 밍량은 바로 디지털로 도전한 자신의 성과물들을 갖고 전주를 찾아왔다. 그러나 이들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디지털이라는 사고가 과거 필름으로 촬영하던 아날로그의 사유를 뛰어넘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물론 세계적인 감독이지만, 필름이 필요없는 디지털 영화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필름과는 무엇을 달리해야 할지, 디지털을 통한 영화의 변혁이란 무엇인지 말해주기에는 미흡했다. 존 아캄프라의 사진에 가까운 영상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아날로그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의 한 단면이나 경계가 될 수 있다는 전통론적인 입장을 확인해주었을 뿐이다. 좀 뭉뚱그려 본 인상이지만 삼색은 ' 개인적 ' 이라는 하나의 색깔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 솔직히 나는 관객을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했다 ". <신과의 대화> 상영이 끝난 뒤 차이 밍량은 첫 디지털 영화를 만든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아 장커 역시 " 디지털만의 장점은 감독과 피사체의 거리를 좁혀 주는 것 " 이라고 말했으며, 영국의 존 아캄프라는 " 디지털 영화는 온전히 감독 개인에게 속할 수 있어 작가주의에 가깝다 "고 견해를 밝혔다. 그들의 공통된 발언에는 기존의 필름 영화들이 너무나 상업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은 가벼운 펜처럼 감독의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전망을 담고 있다.

분명 현재의 디지털 영화가 좀 더 대안적이고, 작가 영화의 가능성을 여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디지털 영화의 과도기인 오늘을 거쳐 이것이 필름 영화처럼 시스템화되었을 경우 위의 인식들은 소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디지털 영화의 새로운 매력에 빠진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는 자신의 새로운 <스타워즈>를 위해 디지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의 행보는 <스타워즈>로 과거 블록버스터 영화의 붐을 일으켰듯이, 이번에는 디지털 영화의 상업화와 시스템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가 성공한다면 할리우드 영화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모두 교체되는 일도 그다지 먼 미래는 아니다.

디지털 영화의 모색

그럼에도 일부 ' N-비전 ' 부문의 영화를 통해 디지털이 가난한 나라의 영화를 이끄는 좌장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는 했다. ' 말레이시아 최초의 디지털 영화 ' 로 알려진 출품작 <립스 투 립스>는 대형스크린에서 만나는 디지털 영상의 질감만큼이나 낯선 느낌의 영화였다. 네개의 이야기가 만났다 헤어지고 다시 한자리로 모여드는 구성에 얽혀든 인간들을 통해 도시의 하루를 블랙코미디로 담았다. 감독은, 디지털이 35㎜필름보다 훌륭한 점은 몰래 찍다가 들켰을 때 재빨리 도망가기 쉽다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디지털의 간편성과 기동성에 대해 이보다 더 솔깃한 증언은 없을 것이다.

간편성과 기동성은 분명 디지털 영화의 강점이다. 최근 한국 독립 영화들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러한 강점과 맞물려 있다. 6월초에 열린 독립 영화의 잔치 『인디포럼』은 개막작과 폐막작을 모두 디지털 영화에게 안겨 주면서 디지털 영상 시대의 도래를 고무시키고 있다. 개막작인 <바다가 육지라면>은 일종의 셀프 카메라형식을 빌어 여러 사람들의 라면 만들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영화들 속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독립, 단편 영화들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카메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영화의 상당수 역시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의 새로운 관념을 일깨우는 작품은 드물지만 세상의 영화들이 자신의 도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물량 공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장편극영화들 중 저예산 방식으로 만드는 영화들의 대다수는 디지털 영화다. 자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작은 이야기를 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실험영화들이나 독립제작 방식의 영화들이 디지털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의 가장 큰 변혁은 오히려 엉뚱한 데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십대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십대 영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 하자 센터 ' 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영화소년소녀들은 다름 아닌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일상을 논하고, 심지어 편지를 쓴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 등장하는 주인공 ' 릭키 ' 가 디지털 카메라로 여자친구를 찍고,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 담아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친숙한 풍경이 된 것이다. 일찍이 장 뤽 고다르는 ' 비디오 카메라 ' 가 등장했을 때 누구나 영화를 찍게되는 미래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보다는 조금은 늦었지만 ' 디지털 카메라 ' 는 고다르의 예언을 새삼스럽게 실현시키고 있다. 글쓰기보다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빠른 세대의 진입은 ' 디지털 ' 이라는 방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터넷 혁명만큼이나 피할 수 없는 영상세대의 혁명 언어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